

일부 미용 전공 학생의 헤어스타일과 성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송미라 · 이재란*

광주 송원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 여수 한영대학 작업치료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styling of College Students in Department of Beauty Art and Their Personalities

Mi-Ra Song · Jae-Ran Lee*

Dept. of Beauty Coordination, Kwangju Song Won Colleg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eosu Han Yeong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 For this, 286 female students from two colleges in Kwangju were interviewed using a questionnaire pertain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hair-style and personality from September 20 through 30, 2001. A χ^2 -test wa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style, personality and other variabl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o define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hair-style, how students decide their hair-style was examined and, as a result, it was reported that 80.8% of targeted students decided by themselves and 19.2% decided by others' suggestions.
2. It is report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ngth of hair, grades, allowances, religion,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characteristics relating to hair-style such as accessories, mood, shape of face, decision of hair-style, and texture of hair.
3. Their preference of perm typ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allowance, religion and accessories, but not with their grades, satisfaction of campus life, mood, shape of face, hair-style, and texture of hair.
4. Dye and bleac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texture of hair, but not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ccessories, mood, shape of face and decision of hair-style.

5. Personality of tenacity,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emotion and falsehood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air-style.

Finally, it was proven that strength,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emotion and falsehood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air-style. More studies to identify personal tendencies that may affect hair-style are necessary.

I. 서 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¹⁾ 미용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하며 미용기술은 자연 상태의 모발이나 피부에 기구, 기계, 화장품 등을 활용하며 사람의 머리 모양과 얼굴 몸매를 아름답게 한다.²⁾

미용이 사람의 모습을 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면, 그 유래는 인간 생존의 역사와 비례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녀 왔던 통념적 인식의 걸치장만이 아닌, 보다 항구적이기를 갈망하는 건강한 신체와 내면의 세계에 대한 유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화 하고 있다. 미용은 역사와 사회 가운데서 문화적 충돌로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산물인 것이다.³⁾

우리나라 여성들이 신문명에 의한 미용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한일합방부터이다. 1920년대에 이숙중 여사의 높은 머리와 김활란 선생의 단발머리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머리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⁴⁾ 이러한 헤어스타일(hair-style)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Total Fashion이란 개념의 도입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⁵⁾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단순히 미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 시기에 유행 감각에 따라 혹은 각자의 개성과 시대, 민족, 개인에 의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며⁶⁾ 신분, 직업, 나이

그리고 체형이나 취향에 따라 바뀌어 질 수 있다. 또 자신의 심리적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간의 신체 모습이 각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자기 존중감, 인간관계, 행동 양식 등에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⁷⁾ 신체상에 대한 불만은 자신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자기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⁸⁾ 신체상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자존심을 상실케 하여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⁹⁾

김양휴⁶⁾는 성격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 모두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과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나명순과 박상학¹⁰⁾은 피부미용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짜증,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기피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 피부 관리 후 피부 건강과 정서적 안녕감을 주는 정신 사회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Jourard and Secord는 개인이 신체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며, 높은 자아존중감과 사람들의 신체 용모에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

따라서 Hair Style이 외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자신의 이미지의 60~70%를 차지하고 심리상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성격 특성에 따라 Hair Style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적인

특성과 헤어스타일 선호도간의 상관성을 규명해
어 있다.
보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전문대학의 미용 관련학과 재학생 1학년과 2학년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조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50명과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하였던 14명을 제외한 286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B.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조사는 2001년 9월 20일부터 2001년 9월 31일까지 10일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배부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연령, 학년, 월평균 용돈, 부모 동거 여부, 자신의 분위기, 종교, 학교 만족도 등의 일반적 특성과 헤어 액세서리(Hair accessories), 헤어 길이, 파마(Perm)상태, 염색 및 탈색, 염색 및 탈색 색상, 헤어스타일 결정, 머릿결 유형, 얼굴형 등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 그리고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 차원 측정 도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 차원 측정 도구는 이현수¹²⁾가 1991년 개발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이다.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는 Eysenck부부(Eysenck & Eysenck, 1975)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oversion-introversion: E),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그리고 허위성(Lie: L) 혹은 사회적 욕망성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성격 차원적 요인의 특징을 측정하는 질문지 형식으로 된 것이다. 성격 특징마다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 네 가지로 보다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12문항씩 모두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원점수는 가중치 없이 어느 것이나 1점을 받도록 되

C.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격 차원에 대한 분류 기준은 연구의 대상자의 성격 특성을 상위 25%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75%는 성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은 강인성 3점, 외-내향성 5점, 정서성 9점, 허위성 8점으로 하였다. 헤어 길이는 긴 머리, 중간 머리, 짧은 머리로 구분하였고, 현재의 파마 상태는 파마를 하지 않았다, 스트레이트파마(Straight Perm)를 하였다, 파마를 해서 웨이브(Wave)를 넣었다고 구분하였고, 현재 염색이나 탈색은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 및 헤어스타일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인구 학적에 변인과 헤어스타일, 성격 특성과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5세였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58.7%, 2학년이 41.3%였다. 월 평균 용돈 액수는 10만원 미만인 17.5%, 10~19만원이 38.8%, 20~29만원이 28.0%, 30만원 이상이 15.7%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51.8%, 없는 경우가 48.3%이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50.7%, 따로 사는 경우가 49.3%였다. 친형제 수의 조사에서도 외동딸의 경우 1.75%, 형제가 있는 경우 98.3%이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 15.0%, 보통이다 68.2%, 만족스럽지 못하다 16.8%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The subject of study's trait of social population

Variable	Number (%)
Age (M ± S.D)	21.5 ± 2.8
Grades	
1st. Grade	168(58.7)
2nd. Grade	118(41.3)
Allowances	
under 100,000 Won	50(17.5)
100,000~200,000 Won	111(38.8)
200,000~300,000 Won	80(28.0)
over 300,000 Won	45(15.7)
Religion	
have	148(51.8)
not have	138(48.3)
Live with parents	
Yes	145(50.7)
No	141(49.3)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ied	43(15.0)
usual	195(68.2)
unsatisfied	48(16.8)
Total	286(100.0)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2. 연구대상자의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얼굴형을 조사한 결과, 둥근형이 41.3%, 계란형이 38.5%, 역삼각형이 4.6%, 사각형이 4.9%, 기타 10.8%로 나타났고,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80.8%, 주변사람이 권유하는 경우가 19.2% 였다. 자신의 머릿결은 가늘고 힘없는 머리가 38.1%, 굵고 뽀뽀한 머리가 24.5%, 말리는 곱슬머리가 13.3%, 윤기 있는 건강한 머리가 24.1% 였다. 핀이나 리본, 머리띠 등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경우가 38.5%,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61.5%이고, 자신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남성적이다가 5.2%, 여성적이다가 43.7%, 중성적이다가 51.1% 였다 (Table 2).

3. 연구대상자의 헤어스타일 분포

머리 길이는 긴 머리 33.6%, 중간 머리 49.7%,

Table 2. The subject of study's related trait of hair style

Variable	Number (%)
Shape of face	
round type	118(41.3)
egg type	110(38.5)
reversed triangle type	13(4.6)
square type	14(4.9)
etc.	31(10.8)
Decision of hair-style	
self	231(80.8)
recommendation of one's close associates	55(19.2)
Texture of hair	
thin hair	109(38.1)
thick hair	70(24.5)
curly hair	38(13.3)
healthy hair	69(24.1)
Accessories	
prefer	110(38.5)
not prefer	176(61.5)
Mood	
manly	15(5.2)
womanly	125(43.7)
neuter	146(51.1)
Total	286(100.0)

짧은 머리 16.8%이며, 중간 길이의 머리를 가진

Table 3. The subject of study's distribution of hair style

Variable	Number(%)
Length of hair	
long	96(33.6)
medium	142(49.7)
short	48(16.8)
Perm condition	
natural	142(49.7)
straight perm	89(31.1)
wave perm	55(19.2)
Dye or bleach condition	
Yes	251(87.8)
No	35(12.2)
Total	286(100.0)

사람이 가장 많았다. 파마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생머리인 경우 49.7%, 스트레이트파마 31.1%, 웨이브 파마가 19.2% 였다. 염색이나 탈색을 한 경우는 87.8%, 하지 않은 경우는 12.2%로, 연구 대상자들이 거의 염색이나 탈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 분포

아이젠크의 성격 차원 검사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강인성이 있다 28.3%, 없다 71.7%, 외-내향성이 있다 32.5%, 없다 67.5%, 정서성이 있다 35.3%, 없다 64.7%, 허위성이 있다 33.9%, 없다 66.1%로 나타났다 (Table 4).

B.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

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학년, 용돈, 종교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는 머리 길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Table 5).

Table 4. The subject of study's distribution of personality

Variable	Number(%)
Tenacity or tenacious personality	
yes	81(28.3)
no	205(71.7)
Extrovert and introvert personality	
yes	93(32.5)
no	193(67.5)
Personality of emotion	
yes	101(35.3)
no	185(64.7)
Personality of falsehood	
yes	97(33.9)
no	189(66.1)

연구 대상자의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액세서리 장식,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 머릿결은 머리 길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Table 6).

Table 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opulation and length of hair

Variable	long	medium	short	p value
Grades				
1st grade	56(33.3)	88(52.4)	24(14.3)	0.3445
2nd grade	40(33.9)	54(45.8)	24(20.3)	
Allowances				
under 100,000Won	15(30.0)	26(52.0)	9(18.0)	0.1897
100,000 - 200,000	37(33.3)	60(54.1)	4(12.6)	
200,000 - 300,000	34(42.5)	32(40.0)	14(17.5)	
over 300,000Won	10(22.2)	24(53.3)	11(24.4)	
Religion				
have	49(35.5)	70(50.7)	3(13.8)	0.4054
not have	47(31.8)	72(48.7)	29(19.6)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y	15(34.9)	16(37.2)	12(27.9)	0.1389
usual	62(31.8)	105(53.9)	28(14.4)	
not satisfy	19(39.6)	121(43.8)	8(16.7)	

Table 6. The relation between trait of hair style and length of hair

Variable	long	medium	short	p value
Accessories				
prefer	33(30.0)	58(52.7)	19(17.3)	0.5934
not prefer	63(35.8)	84(47.7)	29(16.5)	
Mood				
manly	3(20.0)	4(26.7)	3(53.3)	0.0014
womanly	49(39.2)	60(48.0)	16(12.8)	
neuter	44(30.1)	78(53.4)	24(16.4)	
Shape of face				
round type	36(30.5)	62(52.5)	29(17.0)	0.6641
egg type	38(34.6)	55(50.0)	17(15.5)	
reversed	5(38.5)	7(53.9)	1(7.7)	
triangle type	3(21.4)	7(50.0)	4(28.6)	
square type	14(45.2)	11(35.5)	6(19.4)	
etc.				
Decision of hair-style				
self decision	82(35.5)	110(47.7)	39(16.9)	0.3103
recommend of near people	14(25.5)	32(58.2)	9(16.4)	
Texture of hair				
thin hair	38(34.9)	50(45.9)	21(19.3)	0.3055
thick hair	22(31.4)	35(50.0)	13(18.6)	
curly hair	10(26.3)	19(50.0)	9(23.7)	
healthy hair	26(37.7)	38(55.1)	5(7.3)	

Table 7. The relation between trait of social population and perm type

Variable	Natural	Straght permed	Wave permed	p value
Grades				
1st grade	26(51.2)	50(29.8)	32(19.1)	0.8015
2nd grade	56(47.5)	39(33.1)	23(19.5)	
Allowances				
under 100,000Won	34(68.0)	9(18.0)	7(14.0)	0.0058
100,000 - 200,000	52(46.9)	45(40.5)	14(12.6)	
200,000 - 300,000	37(46.3)	21(26.3)	22(27.5)	
over 300,000Won	19(42.2)	14(31.1)	12(26.7)	
Religion				
have	59(42.8)	52(37.7)	27(19.6)	0.00437
not have	83(56.1)	37(25.0)	28(18.9)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y	17(39.5)	17(39.5)	9(20.9)	0.2448
usual	95(48.7)	60(30.8)	40(20.5)	
not satisfy	30(62.5)	12(25.0)	6(12.5)	

Table 8. The relation between trait of hair style and perm type

Variable	Natural	Straght permed	Wave permed	p value
Accessories				
prefer	48(43.6)	32(29.9)	30(27.3)	0.0229
not prefer	94(53.4)	57(32.4)	25(14.2)	
Mood				
manly	11(73.3)	4(26.7)	0(0.0)	0.0659
womanly	53(42.4)	46(36.8)	26(20.8)	
neuter	78(53.4)	39(26.7)	29(19.9)	
Shape of face				
round type	62(52.5)	35(29.7)	21(17.8)	0.0860
egg type	47(42.7)	36(32.7)	27(24.6)	
reversed	3(23.1)	7(53.9)	3(23.1)	
triangle type	8(57.1)	4(28.6)	2(14.3)	
square type	22(70.9)	7(22.6)	2(6.5)	
etc.				
Decision of hair-style				
self decision	113(48.9)	78(33.8)	40(17.3)	0.0771
recommend of near people	29(52.7)	11(20.0)	15(27.3)	
Texture of hair				
thin hair	56(51.4)	31(28.4)	22(20.2)	0.2184
thick hair	36(51.4)	24(34.3)	10(14.3)	
curly hair	14(36.8)	11(29.0)	13(34.2)	
healthy hair	36(52.2)	23(33.3)	10(14.5)	

2.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파마 유형과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파마 유형의 관련성을 본 결과, 용돈, 종교는 파마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헤어스타일 관련특성과 파마유형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파마와 액세서리 장식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머릿결에 따라서는 곱슬머리가 파마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3.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염색·탈색 여부와 관련성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과 염색·탈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학교, 용돈, 종교,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계없이 염색, 탈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able 9. The relation between trait of social population and dye/bleach

Variable	Yes	No	p value
Grades			
1st grade	150(89.3)	18(10.7)	0.3482
2nd grade	101(85.6)	17(14.4)	
Allowances			
under 100,000Won	44(88.0)	6(12.0)	0.0925
100,000 - 200,000	91(82.0)	20(18.0)	
200,000 - 300,000	74(92.5)	6(7.5)	
over 300,000Won	42(93.3)	3(6.7)	
Religion			
have	122(88.4)	16(11.6)	0.7485
not have	129(87.2)	19(12.8)	
Satisfaction of campus life			
satisfy	38(88.4)	5(11.6)	0.8937
usual	170(87.2)	25(12.8)	
not satisfy	43(89.6)	5(10.4)	

헤어스타일 관련특성과 염색, 탈색 여부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액세서리 장식,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 머릿결에 관계없이 염색, 탈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C. 연구대상자의 성격차원과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

1.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은 머리 길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Table 11).

2.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과 파마 유형과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과 파마 유형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은 파마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Table 12).

Table 10. The relation between trait of hair style and dye/bleach

Variable	Yes	No	p value
Accessories			
prefer	99 (90.0)	11 (10.0)	0.3613
not prefer	152 (86.4)	24 (13.6)	
Mood			
manly	13 (86.7)	2 (13.3)	0.9879
womanly	110 (88.0)	15 (12.0)	
neuter	128 (87.7)	18 (12.3)	
Shape of face			
round type	103 (87.3)	15 (12.7)	0.6098
egg type	100 (90.9)	10 (9.1)	
reversed	11 (84.6)	2 (15.4)	
triangle type	11 (78.6)	3 (21.4)	
square type	26 (83.9)	5 (16.1)	
etc.			
Decision of hair-style			
self decision	202 (87.5)	29 (12.6)	0.9159
recommend of near people	49 (89.1)	6 (10.9)	
Texture of hair			
thin hair	102 (93.6)	7 (6.4)	0.0172
thick hair	60 (85.7)	10 (14.3)	
curly hair	35 (92.1)	3 (7.9)	
healthy hair	54 (78.3)	15 (21.7)	

Table 11.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of study's personality and length of hair

Variable	long	medium	short	p value
Tenacity or tenacious personality				
yes	25(30.9)	45(55.6)	11(13.6)	0.4210
no	71(34.6)	97(47.3)	37(18.1)	
Extrovert and introvert personality				
yes	30(32.3)	47(50.5)	16(17.2)	0.9481
no	66(34.2)	95(49.2)	32(16.6)	
Personality of emotion				
yes	32(31.7)	52(51.5)	17(16.8)	0.8732
no	64(34.6)	90(48.7)	31(16.8)	
Personality of falsehood				
yes	38(39.2)	44(45.4)	15(15.5)	0.3549
no	58(30.7)	98(51.9)	33(17.5)	

Table 12.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of study's personality and perm type

Variable	Natural	Straight Permed	Wave Permed	p value
Tenacity or tenacious personality				
yes	40(49.4)	23(28.4)	18(22.2)	0.6714
no	102(49.8)	66(32.2)	37(18.1)	
Extrovert and introvert personality				
yes	47(50.5)	26(28.0)	20(21.5)	0.6586
no	95(49.2)	63(32.6)	35(18.1)	
Personality of emotion				
yes	54(53.5)	28(27.7)	19(18.8)	0.5914
no	88(47.6)	61(33.0)	36(19.5)	
Personality of falsehood				
yes	51(52.6)	29(29.9)	17(17.5)	0.7612
no	91(48.2)	60(31.8)	38(20.1)	

3. 연구대상자의 성격차원과 염색·탈색 여부의 관련성을 본 결과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은 염색·탈색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 대상자의 성격 차원과 염색·탈색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Table 13).

Table 13. The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of study's personality and dye/bleach

Variable	Yes	No	p value
Tenacity or tenacious personality			
yes	72(88.9)	9(11.1)	0.8688
no	179(87.3)	26(12.7)	
Extrovert and introvert personality			
yes	85(91.4)	8(8.6)	0.2671
no	166(86.0)	27(14.0)	
Personality of emotion			
yes	93(92.1)	8(7.9)	0.1450
no	158(85.4)	27(14.6)	
Personality of falsehood			
yes	89(91.8)	8(8.3)	0.1402
no	162(85.7)	27(14.3)	

IV. 고찰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최근 헤어스타일을 가장 두드러지게 채택하거나 동조하는 집단인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적인 특성과 헤어스타일 선호도간의 상관성을 규명해 보고, 향후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21.5세였고, 월 평균 용돈 액수는 10~19만원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29만원이 28.0%였으며 그 다음이 30만원 이상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80.8%, 주변 사람이 권유하는 경우가 19.2%로서 헤어스타일은 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에 본인의 의사를 첨가하는 경우가 65.4%, 본인의 의사를 따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23.4%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진숙³⁾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유행에 관심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자신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남성적이다가 5.2%, 여성적이다가 43.7%, 의외로 중성적인 경우가 51.1%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니섹스 바람의 일종이라 생각되며, 이전의 연약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가미한 중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머리 길이는 중간 길이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파마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생머리 49.7%, 스트레이트파마 31.1%, 웨이브파마가 19.2%로서 나타났으며, 염색이나 탈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질문에는 87.8%로서 거의 염색, 탈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양희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캠퍼스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긴 생머리로서 52.7%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머리의 길

이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과 염색·탈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1학년의 경우 89.3%, 2학년의 경우 85.6%로 대부분 염색·탈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은 액수에 관계없이 염색·탈색을 대부분 하고 있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 염색·탈색을 선호하고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에서 모두 염색·탈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도 이후 시작된 염색이 헤어 패션의 부분으로 자리 잡아 다른 여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년, 용돈, 종교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는 머리 길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과 머리 길이와의 관련성에서도 액세서리 장식,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 머릿결 모두 머리 길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파마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용돈과 파마 상태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머리보다는 파마머리를 선호하고 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생머리를 더 선호하는 경우로 종교와 파마 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돈의 액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미장원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자기주장이 강한 대학생의 경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파마머리를 선호하고 있는 듯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사료된다.

액세서리 장식과 파마 유형과는 파마를 한 사람이 57.2%로 액세서리 장식을 좋아하고 있으며 파마와 액세서리 장식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머리보다는 파마머리에 액세서리 장식을 함으로써 훨씬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머릿결도 곱슬머리가 63.2%로 파마머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요즘 유행하는 매직 스트레이트나 웨이브 파마

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파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곱슬머리인 경우 생머리처럼 머릿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고, 웨이브 파마를 하는 이유는 곱슬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어서 머리손질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 형태, 머리 풍을 말하는 것(服裝大百科辭典, 1969)으로서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쿠아튀르(coiffure)에 해당한다¹²⁾. 복식이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은 상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과 장신구 중에 머리의 표현이 가장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³⁾.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¹¹⁾를 이용하여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으로 분류한 성격차원과 머리길이와 파마유형 및 염색, 탈색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성격차원은 모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이 헤어스타일의 선호도와 변화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양휴⁶⁾와 김진숙³⁾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성격특성이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과 달라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김양휴⁶⁾는 성격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마음에 드는 스타일과 싫어하는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격과 헤어스타일 간에는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한 2개 전문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생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여대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성격차원은 개인별로 특정 성격을 구분해 낸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성격차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은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인의 특징적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격과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두 개의 전문대학 미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 및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1년 9월 2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였으며 일반적 특성,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 헤어스타일과 성격 차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헤어스타일과 성격 특성 및 기타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 관련 특성을 보면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80.8%, 주변사람이 권유하는 경우가 19.2%였다.
2. 머리 길이와 학년, 용돈, 종교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액세서리 장식, 전체적인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 머릿결 등 헤어스타일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3. 파마유형과 용돈, 종교여부와 액세서리 장식의 선호도는 대상자의 파마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과 머릿결은 파마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4. 염·탈색 여부는 머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액세서리 장식, 분위기, 얼굴형, 헤어스타일 선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5.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으로 구분되는 성격차원과 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강인성, 외-내향성, 정서성, 허위성은

헤어스타일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특징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춘자 : “국내 피부미용관리사의 교육 및 업무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1998.
2. 황희순 : 「미용학 개론」, 3(1), 259~279.
3. 김진숙 :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1999.
4. 이명영 : 「종합미용이론」, 서울; 유신출판사, 17
5. 이주연 :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분석”, - 서구 여성의 사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95.
6. 김양휴 :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4
7. 변금순 : “미용성형 수술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7.
8. Rubin, Reva : “The body image and self esteem”, Nursing outlook 21(5), 502~507
9. 이경희 :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2.
10. 나명순, 박상학 :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심리적 특성 및 만족도”, 조선의대 논문집 23(2): 1~36, 1998.
11. 시빌아이젠크, 이현수 :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중앙적성연구소, 1985.
12. 「服飾辭典」, 라사라교육개발원, 도서 출판 라사라, 1995.